

#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료

### 현장 B2B 수출계약액 149만불, 전북 농식품 산업 활성화 기여 평가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낸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우리 발효식품시장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속에 마무리 되었다.

국내외 25개국 32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식품관련 바이어와 각국 대사관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B2B 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액 149만불을 기록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전농발효식품부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 간편식 제품까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진 국내외 참가기업 상품들과 푸드테크 로봇, 스마트팜 로

봇, 글로벌 발효식품전, 2024 우수상품전, 신제품 쇼케이스 등 다양한 전시 아이템을 선보인 "특별기획전시"를 비롯하여 우리 지역의 식품명인을 집중 조명하는 전북식품명인대전과 제18회 전북음식문화대전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농식품 교류 및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다

양한 체험, 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등 품격 높은 문화공연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이은미 원장은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농식품 산업발전을 이끄는 행사로 거듭나며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앞으로도 식품을 통한 전북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농생산업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24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친화 행정 부문 대상을 받았다.

##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노력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5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24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친화 행정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과 브랜드를 2012년부터 선정해왔다. aT는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농한)과 농수산물 유통정보 누리집 '카미스(KAMIS)' 운영으로 소비자 장비구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aT는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2~30%)을 전국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경로로 지속 확대해 왔

다. 그 결과 전통시장환경개선 약 608억 원, 농한 상품권 약 600억 원 매출 발생 등 경제 순환 효과가 있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 확대에 기여했다. 나아가 시니어 계층이 국가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농한 지원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지하철, 버스 등 운수프리인 홍보로 소비자들이 할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장비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한편, 1983년부터 가격조사를 해 온 aT는 전국 농수산물 도매가격을 매일 조사해 농수산물 유통정보 '카미스(KAMIS)' 누리집에 알리고 있다. /오만호 기자



전은, 우수고객 위한 썬뱅크 VIP LOUNGE 오픈 및 기념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북은행 앱 썬뱅크에 우수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LOUNGE'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개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픈한 썬뱅크 VIP LOUNGE'는 내 등급 정보 및 등급별 혜택을 안내하고 여러 트렌드에 맞춘 미술품 정보와 경제대거진 등을 제공한다. 또한 JB문화 공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문화·공연·스포츠 등의 입장권을 행사 운영 기준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VIP LOUNGE' 오픈을 맞아 30일까지 개인 우수고객 대상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수고객만의 특별함을 살린 경품 증정 이벤트로 전북은행 최초 미술품 조각투자 앱 '소투(SOTWO)'를 운영하는 아트 파이낸스 기업 '서울옥션블루'와 협업을 통해 '오션 알버스'와 '앤디 워홀'의 미술품 및 베스트셀러인 '트렌드 2025'를 참여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중 행운의 복권권이'를 통해 총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VIP LOUNGE 오픈과 함께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우수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국민연금,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통계청장 표창

###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노후소득보장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기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6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6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통계 통합DB'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정 관리를 위해

매년 시의성과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자료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공단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노후 소득보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국민연금통계', '국민노후보

장패널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통계"는 가입종별·지역별·성별 등 109종 유형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통계수록이 중단되었던 징수현황도 작년년부터 '국민연금통계'에 복원시켜 통계정보의 변동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해석을 위해 지속해서 통계제공 항목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http://datanpsorkr>)을 통해 국민연금통계 수치를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분석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여 2년마다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실태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 통계자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소중한 공적자료"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6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6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2024년도 4분기 관내 환경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5일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관내 환경업무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전주기상지청, 한국환경공단(전북환경본부),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부), 한국환경보전원(호남지사), 국립공원공단(서부지역본부, 내장산생태탐방원) 등 6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송 청장은 "올해 초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잘 추진되었는지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농진청, 농학계 대학장·학회장 공동 학술 토론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농대협),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농과협) 공동으로 7일 전남 해남군 오시아노 리조트에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공동 학술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공개 토론회(포럼)와 병행해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농대협, 농과협 회장단과 임원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과 해남군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점차 일상화해 가는 극심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남재철 전 기상청장이 '기후 위기 시대 글로벌 식량안보'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이어 국가농림기상센터 김광수 센터장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외정책 연구 및 시사점', 농촌

진흥청 신재훈 기후변화평가과장의 '기후변화 영향과 농업 분야 대응 전략', 상지대 이명규 교수의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경축 순환 전략'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신재훈 기후변화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호우, 폭염, 가뭄 등 농업 분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부산대학교 박원철 교수(농대협 회장)를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주제 발표자가 참석 농식품 분야 기후 위기 극복 당면과제와 대응 추진 전략 등 학연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고, 관련 학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